

70대 학자의 20년 열정, 중한 문화교류의 다리 있다

한국중문교육연구회 이사장, 무지개공자학원 중국측 원장 김진무교수의 이야기

“중한 교류의 실질적인 다리를 놓는 것이 내 생명의 의의입니다.” 한국중문교육연구회 이사장이며 무지개공자학원 중국측 원장인 김진무교수가 늘 하는 말이다. 길림성 출신의 76세 조선족 학자 김진무는 2006년 한국땅을 밟은 이래 20년 가까이 중국어 교육과 중국 문화 보급 사업에 매진하며 이 분야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했다.

■ **중국어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며**
김진무교수는 1976년 대학 졸업후 공무원, 교원, 투자유치 책임자 등으로 활약하다가 2006년 세명대학교 중문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한국에서 중한 랑국을 잇는 ‘새로운 무대’를 펼치기 시작하였다.

6년간의 세명대학교 교직을 마친 김진무교수는 더 넓은 중한 문화·교육 교류 사업에 전념했다. 한국중문교육연구회 이사장, 길림성교육국제교류협회 부회장, 무지개공자학원 중국측 원장 등을 겸임하며 중국어 연구, 교사 역량 강화, 중한 대학간 문화교류 등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의 리더십하에 무지개공자학원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했다. 입사전 엄격한 선발,



▲ 김진무 원장 (76세)

입문 교육, 재직 6개월 심화 교육 및 1년 후속 연수 등을 도입하며 한국 중국어 교육의 건실한 토대를 마련했다. 김진무교수는 수년간 국제 학술회의와 협력 교류에 적극 참여하며 한국의 중국어 교육 표준에 대한 구축과 제도 정비에 끊임없이 추진해왔다.

그의 노력 또한 각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중국 교육부가 주최한 ‘세계 중국어대회’에서 김진무교수는 ‘2024년도 우수공헌상’을 수상했다. 이는 국제중문교육 분야의 최고 영예 중 하나이다.

전세계 공자학원 시스템내 중국측 원장중 유일하게 이 상을 받음으로써 그의 뛰어난 리더십과 해외 중국어 교육에 대한 보급 성과 또한 입증되었다.

같은 해 김진무교수는 ‘공자학원 원장 기념메달’도 추가로 수상했다. 이 메달은 10년 이상 공자학원에서 근무하며 교육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원장에게 수여되는데 그는 2024년도 유일하게 중국측 원장으로 이 영예를 안았다.

■ 상호 이해와 우호 도모

김진무교수는 “나는 중국에서 나사자란 중국인이며 중국 소수민족중의 조선족이다.”라며 중한 문화에 대해 “중국의 광활한 령토와 다민족 특성이 극히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 형태를 낳은 반면 한국은 단일민족국가로서 국토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있기에 문화가 일관성을 띤다.”며 “차이가 있지만 한자문화권의 깊은 뿌리는 동북아를 긴밀하게 련결시킨다. 한국어 어휘의 약 70%는 한자에서 온 것이다. 한자를 모르면 어휘의 심층적 의미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무교수는 민간 문화교류가 안정적 발전의 기반임을 확신한다. 그는 “중한 젊은이들이 상호 국가에서의 류학을 통해 랑국 우호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격려한다. ‘인류운명공동체’라는 리념을 품고 ‘지구촌’ 시각에서 인류문명에 기여해야 한다.”며 바람을 전했다.

교회를 넘긴 나이에도 김진무교수의 열정과 사명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는 중한 랑국 교육계 자원을 활용해 ‘다리’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며 특히 대학생 교류 등 분야 협력을 통해 두 나라의 우호를 돈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명준기자

한중청년미래우호증진단, 중국대사관 방문

6월 5일, 제3회 한중청년미래우호증진단(단장 포함 총 30여명)이 주한 중국대사관을 방문했다. 방공 공사(公使)를 비롯한 대사관 청년외교관들이 증진단 성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방공 공사는 중한 관계 현황과 외교업무 수행 소감을 소개하며 “중한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우호 협력 강화는 랑국 리익에 가장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진단 성원들에게 교류와 상호 학습을 강화하고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며 랑국 청년들의 교류 확대를 이끌어 중한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사관 청년외교관들은 증진단 성원들과 관심 주제에 대해 친선 교류를 나눈 후 대사관내 문화 전시품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진행했다.

증진단 성원들은 일제히 “이번 주한 중국대사관 방문은 의의 깊은 행사였다. 중한 관계에 대한 인식과 체감을 깊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중한 우호 증진에 젊은이들의 힘을 보탬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방공 (앞줄 우5) 공사와 증진단 성원들이 기념사진을 남겼다.

한중청년미래우호증진단은 한국 외교부 주관으로 구성된다. 이번 증진단

은 18명의 한국 대학생과 12명의 재한 중국인 류학생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단체는 5월말 중국을 방문해 한국

독립운동유적지 탐방을 성공리에 마친 바 있다.

/ 주한 중국대사관

한중도시우호협회, 하북성과 관광 설명회 개최

일전, 한중도시우호협회(회장 권기식)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소재 포포인즈 바이 쉐라톤 구로 호텔(首尔九老区福朋喜来登酒店) 연회장에서 중국 하북성문화관광청과 공동으로 “2025 하북 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아름다운 중국, 신비로운 하북’을 주제로 하북성 관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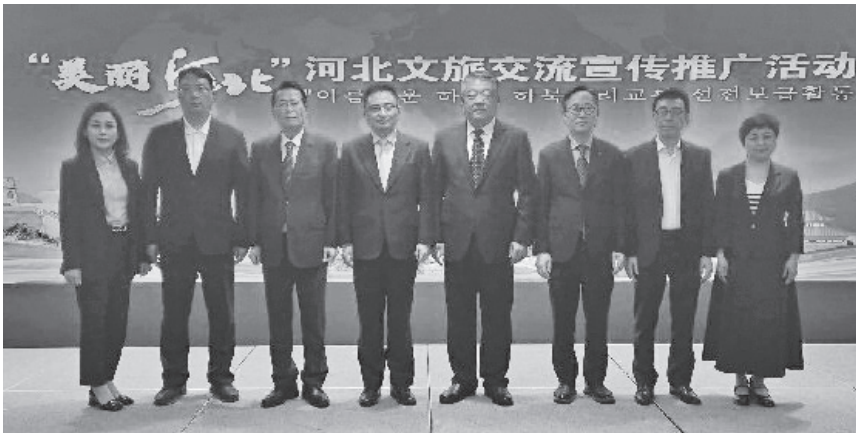
원을 홍보하고 중한 관광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 권기식과 금천구청장 유성훈, 주한 중국대사관 정무공사 방곤, 하북성문화관광청 부청장 장지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권기식 회장은 “2024년 1분기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351만명,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417만명으로 나타났다.”며 “중국 역사와 문화의 보고(宝库) 이면서 북경 및 천진과 가까워 접근성이 매우 좋은 하북성을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천구청장 유성훈은 “금천구는 하북성과 문화·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행사장에서 기념사진을 남긴 참석자들(좌3부터 권기식 회장, 방곤 정무공사, 장지 부청장, 유성훈 구청장.)

주한 중국대사관 정무공사 방곤은 “하북성은 한국의 경기도와 비슷한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가 있는 곳”이라며 “이번 기회에 중한 랑국이 관광을 매개로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북성문화관광청 부청장 장지는 “하북성은 중화문명의 발상지이자 관광의 보고이다. 북경과 가깝고 접

근성이 좋은 하북성을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 래원현(涞源县) 서기왕연이 관광명소에 대해 소개했다. 60여개 한국 관광업체들이 설명회에 참여해 하북성 관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한중도시우호협회, 《길림신문》 해외판 이호국기자

2025 오사카엑스포 ‘길림활동일’ 개최



길림성이 주최한 ‘길림활동일’ 행사 6월 9일 오사카엑스포 중국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길지(吉地)’의 화려함 엑스포에서 피어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중일 랑국의 각계인사 약 1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중국국제무역촉진회 길림성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는데 하루 일정에 개막식, 주제 전시, 무형문화유산 전시,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길림성은 이번 엑스포를 기회로 지역 자원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고 일본을 비롯한 참가국들과 문화관광, 경제무역, 녹색저탄소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개막식에서 길림성의 경제·사회·문화 발전과 대외개방 성과를 담은 영상이 상영됐으며 문화관광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함께 소개됐다.

주요 레빈들인 주오사카 중국 총령사 설검, 오사카엑스포 중국관 관장이며 중국국제무역촉진회 전람관리부 부장인 우승영, 일본 돗토리현 부지사 가메이 이찌가, 주심양 일본 총령사 하마다 다카시, 일본엑스포협회 국제국 집행주임 나가노 히카루 등이 축사를 했다. 개막식후 참석자들은 전통문화 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랑국의 문화교류를 이어갔다.

전시 프로그램은 ‘다채로운 길림’을 테마로 ‘금색 길림’, ‘은색 길림’, ‘남색 길림’, ‘록색 길림’ 네가지 섹션으로 구성됐다. 현장에는 길림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 풍부한 특산물 등을 소개하는 사진과 설



/ 길림일보

로씨야—중국 ‘일대일로’투자연합회 중한시범구서 협력 모색

일전, 로씨야—중국 ‘일대일로’투자연합회 부회장 겸 로씨야림달통상구변경주식유한회사 리사장 류회주, 할빈아름과학기술유한책임회사 리사장 왕력강 일행이 중한(장춘)국제협력시범구(이하 ‘중한시범구’)를 방문하여 3D 프린팅(打印) 기술 협력 및 중로 산업 협력 기회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로씨야—중국 ‘일대일로’투자연합회(이하 ‘투자연합회’)는 로씨야 법무 모스크바총국 승인과 주로씨야 중국대사관 공증을 받은 단체이다. 이 연합회는 국제적 리치를 바탕으로 ‘일대일로’ 창외에 대한 심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로 및 동반 회원국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일대일로’ 국제 대련합 플랫폼과 ‘일대일로’ 창외 및 경제무역과 문화관광 발전에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다. 이번 중한시범구 방문은 로씨야 극동지역 발전 전략과 중국지역 발전 계획을 토대로 동북아 산업 령계를 모색하기 위한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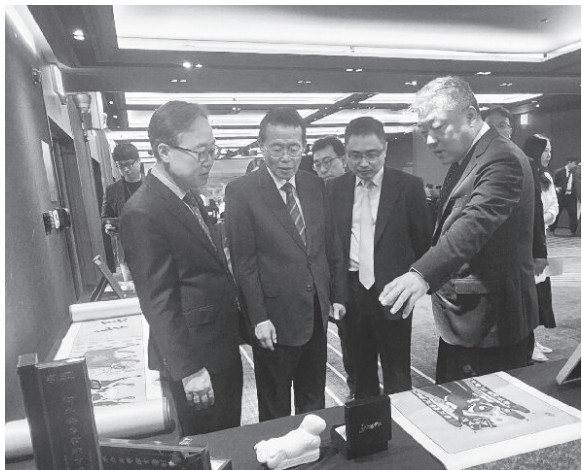
한편, 할빈아름과학기술유한책임회사는 금속 3D 프린팅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티타늄합금 항공 부품 제조 기술과 의료 임플란트(植入物) 혁신 분야에서 그 령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중한시범구의 첨단장비 제조 등 산업 발전 전략과 상호 맞물린다.

간담회에서 중한시범구 도시관리국 부국장 완수명은 중한시범구의

지리적 위치와 국경간 생산력 령력 측면에서의 독보적 우세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왕력강은 항공우주, 의료, 산업용 금형(工业模具)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3D 프린팅 기술의 첨단 응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기술이 첨단 제조업에 부여하는 광활한 발전 전망을 제시했다. 류회주는 ‘이중가지’ 전략 구상을 제안했는데 이는 로씨야 림달통상구에 ‘위성도시 생산기지’를 설립해 기술의 수출 장벽을 해소하는 동시에 핵심 기술의 현지화를 추진함으로써 산업 상류 원자재 공급과 중간재 제조 령력을 위한 혁신적인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어 중과창업투자관리유한회사(中科公司)에서 스타트업 투자 지원 및 금융 팩토링(融资租赁) 등 내용을 해석하고 기업을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기술 현지화—산업 협력—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하에 다수의 합의 사항에 도달했다.

향후 중한시범구 도시관리국은 할빈아름과학기술유한책임회사의 금속 3D 프린팅 프로젝트가 현지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고 ‘로씨야 원자재 공급—장춘 기술 전환—글로벌 시장 확장’의 전 주기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중로간 고수준의 실질적 협력에 과학기술과 산업 융합의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예정이다.

/ 김명준기자



▲ 하북성 특산품을 둘러보는 관계자들(왼쪽으로부터 유성훈 구청장, 권기식 회장, 방곤 정무공사, 장지 부청장.)